

[고2 신사고2]Ⅱ -4-(1) 해방 이후 ~ 1960년대의 문학

너와 나만의 시간

(황순원)

<핵심정리>

- 갈래 : 단편 소설, 전쟁 소설
- 성격 : 사실적, 실존적, 휴머니즘적
- 문체 : 간결체
- 배경 : ·시간적 : 6·25 전쟁 중
·공간적 : 어느 깊은 산 속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표현 : 우화적인 삽화를 통해 전쟁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함.
- 짜임 : ·발단 : 부상당한 주 대위와 함께 무작정 걷고 있는 현 중위와 김 일등병
·전개 : 현 중위의 꿈
·위기 : 현 중위가 떠나버리고 난 후 얼마 안 있어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은 현 중위의 시체를 발견함.
·절정 : 주 대위는 김 일등병의 걸음을 재촉하며 총을 겨눔.
·결말 : 드디어 인가를 찾아 낸 주 대위와 김 일등병
- 재제 : 전쟁 중 낙오한 세 명의 병사
- 주제 : 극한 상황 속에서 발휘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의지
- 출전 : <황순원 전집 4>(1994)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전쟁에서 낙오와 부상으로 인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세 사람의 심리와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보여 준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삶의 욕구이다. 현 중위는 자신의 삶을 위해 혼자 떠나지만,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된다. 김 일등병은 끝까지 주 대위를 버리지 않는다. 주 대위는 자신이 그들에게 짐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삶의 욕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주 대위가 마지막에 듣는 소리는 실제의 소리라기보다는 끝까지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의지의 표현에 가깝다. 주 대위가 들은 그 소리는 김 일등병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소리로서, 생존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는 힘이 된다. 주 대위는 김 일등병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개 짖는 소리를 듣는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작품의 말미에서 개 짖는 소리는 이들의 삶에의 욕구에 대한 희망의 소리인 것이다.

■ 소설에서 삽화적 장치의 역할

지은이는 소설 속에 삽화적 장치를 해 두는 경우가 있어. 이 장치는 작품의 주제나 인물이 처한 상황, 인물의 심리, 태도 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역할을 하지. 부수적으로 작품의 분위기를 잠시나마 새롭게 환기시키는 효과도 거두고. 이 소설의 삽화적 장치에서 ‘조그만 개미’는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무의미하고 하찮게 죽어가야 하는 나약한 인간 개개인의 모습을 상징하고, ‘왕개미’는 이런 나약한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대 권력이나 힘을 상징하지. 이를 통해서 지은이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환란 속에 던져진 나약하기 짝이 없는 세 인물의 비극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거야.

■ 등장 인물

- 주 대위 : 전투에서 허벅지 관통상을 당해 부하의 부축을 받는다. 자기로 인해 남은 사람마저 위험에 빠뜨릴 것 같아 자결을 결심하는 순간 개 짖는 소리를 듣게 되고, 김 일등병을 초가집에 안내한 후 죽는다. 삶에 대한 집념이 강한 인물.
- 현 중위 : 짐이 되는 주 대위에게 무언중 자결을 독촉하나 뜻이 이뤄지지 않아 혼자 도망치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다. 현실적인 인간으로 정에 얽매

이기보다는 실질적인 가능성을 향해 움직이는 인물.

- 김 일등병 : 부상당한 주 대위를 업고 길을 해마다 지쳐 삶의 의욕을 상실하지만, 주 대위의 마지막 명령으로 살 길을 찾는다. 따뜻한 인간애를 지닌 인물.

■ 현 중위의 꿈과 환상

이 글에는 개미 구멍 입구에 서서 일렬로 나오는 개미들의 목을 기계적으로 물어 죽이는 왕개미의 장면이 우화적인 삽화로 처리되어 있다.

개미는 습관적으로 열을 지어갈 뿐 그 대열의 끝이 죽음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상황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 놓인 현대인의 자화상과도 같다. 동시에 현 중위가 부상당한 주 대위를 부축하고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 개미의 시체가 변한 흙 속에 자신도 묻혀버리는 절망적인 결과만 낳으리라는 불안한 심리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 중위는 의식적으로 탈출구를 뚫어 놓는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이는 현 중위의 위기 의식을 더욱 고조시켜 혼자서 도망가는 행동을 낳게 한다. 이 글에서는 개미의 삽화를 통해 전쟁과 낙오병이라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과 현 중위의 심리를 상징적·압축적·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평가 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낙오한 주 대위와 현 중위, 김 일병 세 사람은 무턱대고 남쪽으로 내려온다. 부상당한 주 대위를 교대로 업고 오던 현 중위는 떠나지만 김 일병은 주 대위를 업고 오다가 현 중위의 시체를 발견하고 자신의 죽음을 몸 가까이 느끼게 된다.

저도 모르게 혼곤히 잠속에 끌려 들어갔던 김 일등병은 주 대위가 무어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하늘에 별이 총총 나 있었다.

“저 소릴 좀 듣게.”

주 대위가 누운 채 쇠진한 목 안의 소리로,

“풋소리세.”

김 일등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과연 먼 우레 소리 같은 포성이 은은히 들려오는 것이다.

“어느 편 폼니까?”

“아군의 포야. 백오십오 밀리의…….”

이 주 대위의 감별이면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으려는데 주 대위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사십 리는 실히 되겠어.”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 해도 소용이 없다.

김 일등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 버렸다.

주 대위는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 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 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첫째 현 중위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버려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 일등병이라 하더라도 혼잣말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는 김 일등병을 향해,

“풋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 있는 발 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다!”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로 말했다.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그때, 바로 그때 주 대위의 귀에 은은한 푹소리 사이로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려 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도 의심스러운 듯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김 일등병이 고개만을 들고 잠시 귀를 기울이듯 하더니,
“무슨 소리 말입니까?”
“지금은 안 들리는군.”

거기에 그쳤던 소리가 바람을 탄 듯이 다시 들려 왔다.
“저 소리 말야. 이 머리 쪽에서 들려오는…….”

그래도 김 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개 짖는 소리** 같애.”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 일등병은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 머리 쪽으로 무릎걸음을 쳐나갔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 등성이를 넘어가면 된다!”

그러나 김 일등병의 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누웠던 자리로 도로 뒷걸음질을 쳤다.

주 대위는 김 일등병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도 받고 싶었다.

김 일등병이 드러누우며 혼잣소리로,
“내일쯤은 까마귀 때가 더 많이 몰려들겠지. 눈알이 붙어 있는 거두 오늘 밤뿐야.”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권총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깜짝 놀라 돌아다보니 어둠 속에 주 대위가 권총을 이리 겨누 채 목 속에 잠긴 음성치고는 또렷하게,

“날 업어!” 하는 것이다.

김 일등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일어나 등을 돌려 대는 수밖에 없었다.

“자, 걸어라!”

김 일등병은 자기 오른쪽 귀 뒤에 권총 끝이 와 닿음을 느꼈다.
등성이를 넘어 컴컴한 나무숲으로 들어섰다.

“좀 서!”

엎힌 주 대위가 잠시 귀를 기울이고 나서,
“왼쪽으로 가!”

좀 후에 그는 다시, “잠깐만.”

그리고는, “앞으루!”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하는 주 대위의 말대로 죽을힘을 다해 걸음을 옮겨 놓는 동안에도 김 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주 대위가 죽음을 앞두고 허깨비 소리를 듣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하필 자기네 두 사람은 마지막에 이리다가 죽을 필요는 무언가. 어젯저녁부터 혼자 업고 오느라고 갇은 고역을 다 겪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원망이 주 대위를 향해 거둬 복받쳐 오름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걷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른쪽 귀 뒤에 감촉되는 권총 끝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 마 옮겨 놓게 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산 밑에 이르렀다.

“오른쪽으로!”

“그대루 똑바루!”

그제야 김 일등병의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점점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졌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한 거리에서 인지는 짐작이 안 되었다.

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 놓는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럴건만 쉬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귀 뒤에 와 닿은 권총 끝이 더 세게 밀고 있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다. 어떻게 걸음을 떼어 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저쪽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거기서 짖고 있는 개의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과 동시에 귀 뒤에 와 밀고 있던 권총 끝이 별안간 물러나면서 엎힌 주 대위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 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 -

1. 위 글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ㄱ. 간결한 문장과 사실적 묘사로 기술되었다.
- ㄴ. 서사 전개 과정에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다.
- ㄷ. 사건의 관찰과 서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두었다.
- ㄹ.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ㄹ ⑤ ㄷ, ㄹ

2. 개 짖는 소리 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의 분위기에 긴장감을 부여한다.
- ②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연결고리가 된다.
- ③ 인물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 ④ 사건이 전개되는 자연 환경의 특성을 제시한다.
- ⑤ 인물의 내면 심리가 전환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3. ㉠에 내포된 의미를 적절히 표현한 것은?

- ① 머잖아 전쟁이 끝날 것이네.
- ② 자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겠네.
- ③ 우리를 찾는 아군이 곧 도착할 것이네.
- ④ 조금만 더 내려 가면 마을이 있을 것이네.
- ⑤ 자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해하겠네.

4. [A]의 상황에서 김일병이 <보기>의 장면을 떠올렸다면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개천 독에 이르렀다.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는 그 시냇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다리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독에 퍼지고 앉아서 바닷가랑이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아 업자.”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느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냐. 자아,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 ① 조금하게 서둘렀던 자기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 ② 현실 극복은 서로가 힘을 합해야 가능함을 느꼈기 때문에
- ③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부모님을 떠올렸기 때문에
- ④ 부조리한 현실에도 곳곳한 사람들의 모습에 감동했기 때문에
- 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스스로를 위로했기 때문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능선굴이에 이르렀다. 김 일등병이 대번해서 업을 차려였다.

지형상으로 보아 앞에 가로놓인 계곡을 내려가 앞산으로 질러 올라가면 잠깐이요, 그렇지 않으면 꾸불꾸불 굴이진 능선을 상당히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곳이었다.

현 중위는 계곡을 내려가 곧장 가차고 했다. 누구든지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었다. 더욱이 그들은 단 몇 걸음의 단축이나 마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 것이었다.

김 일등병의 의견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계곡을 내려가다가 나무숲 속에서 방향이라도 잃게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길만 더 더디게 되기 쉽다는 것이다.

얼른 결정이 지어지지 않고 있을 때 주 대위가 한 마디 했다.
“현 중위, 김 일병의 말대로 하지.”

①**퍼뜩 현 중위의 눈이 주 대위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 권총으로 갔다.** 그러는 그의 눈 앞에는 또 다시 꿈의 장면이 나타났다.

(나) 한결같이 누렇게 뜬 하늘에는 황달 든 태양이 타고 있고, 그 밑으로 한없이 넓게 깔려 있는 불모의 황야. 그 한가운데 그는 땅을 철철 흘리며 서 있었다. 바로 앞에 누렇게 뜬 메마른 흙바닥에 개미 구멍이 있어, 누런빛을 한 조고만 개미 떼가 연달아 기어 나

오고, 그것을 구멍 입구에 같은 빛깔의 왕개미가 대기하고 서서 자꾸만 목을 잘라 내고 있는 것이다. 마치 그것은 왕개미가 기계적으로 주둥이를 놀리고 있는데 거기 꼭 맞는 속도로 작은 개미 떼들이 기어 나와 목을 들이치는 것과도 같았다. 그리고 목 잘린 개미 떼들은 그대로 누렇게 뜬 흑으로 화해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거기 따라 점점 흑이 높아지면서 그의 정강이털이 거의 묻히게 돼 있었다.

초조할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곳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개미 구멍 한옆에 따로 뚫려져 있는 셋구멍을 하나 발견했다. 이것만은 꿈속에서는 전혀 없었던, 지금 그 자신이 의식적으로 뚫어 놓은 구멍이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개미 떼들은 그냥 본래의 구멍으로만 나오면서 목을 무수히 잘리우고 있는 것이었다.

현 중위는 주 대위를 업지도 않은 몸이건만 전신에 비지땀을 흘렸다.

(다) 해거름 때 세 사람은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아 구워서 나눠 먹었다.

다 먹고 난 현 중위가 뒤라도 마려운 듯이 자리를 떴다.

그런 지 좀만에 주 대위가 김 일등병에게 말했다.

“자네두 여길 떠나게.” / 김 일등병은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이 주 대위를 쳐다봤다.

“현 중위 갔어. 기다리다 못해.”

“기다리다 못해 가다뇨?”

“내가 자살하길 기다리다 못해 떠났어.”

사실 현 중위는 돌아오지 않았다.

주 대위는 김 일등병의 시선을 마주 바라보기를 피하면서

“자네두 어서 여길 떠나게.”

김 일등병은 잠시 주춤거리다가 서산에 비낀 붉은 놀을 한 번 바라보고는 말없이 주 대위에게 등을 돌려 댔다.

- 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 -

5. 다음 중, 이 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인간 본성에 내재된 생존에의 본능
- ② 남북 이념 차이에서 비롯된 전쟁의 참혹상 고발
- ③ 지은이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는 절제된 어조
- ④ 소설 미학의 전범을 보여 주는 다양한 기법적 장치
- ⑤ 사건의 단출한 이미지 부각을 통해 작중 상황을 암시적으로 환기

6. 이 작품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① 전쟁이라는 거대한 재난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고 있는 전쟁 소설이다.
- ② 개미에 대한 삽화의 삽입으로 등장 인물의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③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간들이 각기 어떠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 한다.
- ④ 현 중위가 죽고 난 뒤, 주 대위와 김 일등병 역시 인가를 눈앞에 두고 그만 생을 놓아 버리고 만다.
- ⑤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등장 인물들이 미묘하게 변화하는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2. 이 글에 나타난 주 대위의 심리 변화 과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절망 → 결단 → 기대 → 의심
- ② 자책 → 증오 → 살의 → 의지
- ③ 자책 → 결단 → 절망 → 불안
- ④ 자책 → 결단 → 기대 → 의지
- ⑤ 자책 → 결단 → 절망 → 각성

13. 이 글의 문체상 특징과 효과로 알맞은 것은?

- ① 압축과 생략을 통해 여운을 느끼게 한다.
- ② 간접 화법을 사용하여 서술자의 의식을 드러낸다.
- ③ 짧고 간결한 문장 서술을 통해 감각적 인상을 제시한다.
- ④ 치밀한 묘사적 문체를 사용하여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 ⑤ 감각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선명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14. 다음 보기는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해석이다.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보기

- ① 주 대위는 권총으로 김 일등병을 위협하여 계속 길을 가게 한다. 이 때 ‘권총’은 ② 죽음과 연관되지만, 결국 ③ 김 일등병을 살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는 ④ 현 중위의 살기 위한 도망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과는 대비되는 설정이다. 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 설정은 전쟁의 비극성을 극복하는 기능을 한다.

15. 작품 자체의 내재적 관점에 주목하여 감상한 것이 아닌 것은?

- ① 삽화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 ② 작품의 배경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 ③ ‘개 짖는 소리’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았다.
- ④ 세 인물의 행동 양식에 대해 그 차이점을 생각해 보았다.
- ⑤ 작품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주 대위, 김 일등병, 현 중위 세 사람은 전쟁 중에 낙오하여 인적이 없는 깊은 산 속에서 며칠째 헤매고 있다. 주 대위는 허벅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있어, 다른 두 사람이 교대로 업고 무작정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는 업기 전에 슬쩍 주 대위의 허리띠를 바라봤다. 거기에는 권총이 매달려있었다. 그들 세 사람은 이미 배낭이며 철모며 총이며 옷저고리를 벗어버린 지 오래였다. 남은 무기라곤 주 대위의 허리에 찬 권총뿐이었다. 주 대위는 현 중위의 눈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갔다. 그리고 그의 심중을 헤아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게 됐을 때부터 이미 자기의 몸통어리는 두 사람에게 거추장스러운 짐박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차마 상사인 자기를 그냥 내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은 이쪽이 그걸 알아차리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 대위는 현 중위의 시선을 모른 채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군복바지와 군화마저 벗어버리고 그

의 등에 업혔다.

주 대위를 다시 바뀐 업은 현 중위는 땀을 철철 흘리며 걷는 동안, 벌써 몇 번째가 눈앞에 떠올랐던 것이 다시금 나타났다. 그는 그젓밤 적의 팽과리와 날라리 소리를 듣기 전 잠 속에서 꿈을 꾸었던 것이었다. 누렇게 뜬 하늘 한복판에 황달 든 태양이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누렇게 뜬 불모의 황야가 하늘과 맞닿은 데까지 한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한가운데 그는 땀을 철철 흘리며 서있었다. 풀썩거리는 누런 흙이 걷어올린 정강이 한 종턱까지 올라와 있었다.

현 중위는 자기 등을 짓누르고 있는 주 대위의 중량을 자꾸만 느꼈다. 이 달갑지 않은 중량을 제거해 버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다. 주 대위 자신이 어서 삶에 대한 미련을 단념해 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세 사람이 이름도 모르는 산중에서 몰죽음을 당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그는 목이 탔다.

어느 능선굽이에 이르렀다. 김 일등병이 대번해서 업을 차례였다. 지형상으로 보아 앞에 가로놓인 계곡을 내려가 앞산으로 질러 올라가면 잠깐이요, 그렇지 않으면 꾸불꾸불 굽이진 능선을 상당히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곳이었다.

현 중위는 계곡을 내려가 곧장 가자고 했다. 누구든지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었다. 더욱이나 그들은 단 몇 걸음의 단축이냐냐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 것이었다.

김 일등병의 의견은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다. 계곡을 내려갔다가 나무 숲속에서 방향이라도 잃게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길만 더 더디게 되기 쉽다는 것이다.

얼른 결정이 지어지지 않고 있을 때 주 대위가 한마디 했다.

“현 중위, 김 일병의 말대로 하지.”

퍼뜩 현 중위의 눈이 주 대위의 허리에 매달려있는 권총으로 갔다. 그러는 그의 눈앞에는 또다시 꿈의 장면이 나타났다. 한결같이 누렇게 뜬 하늘에는 황달 든 태양이 타고 있고, 그 밑으로 한없이 넓게 깔려있는 불모의 황야. 그 한가운데 그는 땀을 철철 흘리며 서 있었다. 바로 앞에 누렇게 뜬 메마른 흙바닥에 개미 구멍이 있어, 누런빛을 한 조그만 개미떼가 연달아 기어나오고, 그것을 구멍 입구에 같은 빛깔의 왕개미가 대기하고 서서 자꾸만 목을 잘라내고 있는 것이다. 마치 그것은 왕개미가 기계적으로 주둥이를 놀리고 있는데 거기 꼭 맞는 속도로 작은 개미떼들이 기어나와 목을 들이치는 것과도 같았다. 그리고 목 잘린 개미떼들은 그대로 누렇게 뜬 흙으로 화해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거기 따라 점점 흙이 높아지면서 그의 정강이턱이 거의 묻히게 돼 있었다.

초조할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곳에 서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현 중위는 주 대위를 업지도 않은 몸이건만 전신에 비지땀을 흘렸다. 해거름때 세 사람은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아 나눠 먹었다. 다 먹고 난 현 중위가 뒤라도 마려운 듯이 자리를 떴다.

그런지 종만에 주 대위가 김 일등병에게 말했다. “자네두 여길 떠나게.”

김 일등병은 그게 무슨 말이라는 듯이 주 대위를 쳐다봤다. “현 중원 갔어, 기다리다 못해.”

“기다리다 못해 가다뇨?” / “내가 자살하길 기다리다 못해 떠났

어.”

사실 현 중위는 돌아오지 않았다.

주 대위는 김 일등병의 시선을 마주 바라보기를 피하면서,
“자네두 어서 여길 떠나게.”

김 일등병은 잠시 주춤거리다가 서산에 비낀 붉은 놀을 한번 바라보고는 말없이 주 대위에게 등을 돌려댔다. 혼자 업고 가는 길이라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지가 않았다. 조금 가서는 쉬고 조금 가서는 쉬고 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아무데고 드러누웠다.

김 일등병이 잠든 뒤에도 주 대위는 눈을 붙이지 못했다. 이제와선 상처의 아픔도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일단 잠들었다가는 영 깨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중략>

저도 모르게 혼곤히 잠 속에 끌려 들어갔던 김 일등병은 주 대위가 무어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하늘에 별이 총총 나 있었다.

"저 소릴 좀 듣게." 주 대위가 누운 채 쇠잔한 목 안의 소리로, "꽃소릴세."

김 일등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과연 먼 우렛소리 같은 포성이 은은히 들려 오는 것이다. "어느 편 폼니까?" / "아군의 포야. 백 오십오 마리의……."

주 대위의 감별이면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으려는데 주 대위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사십 리는 실히 되겠어."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 해도 소용이 없다. 김 일등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 버렸다.

주 대위는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 오던 어떤 상념(想念)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첫째 현 중위가 방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 버려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 일등병이라 하더라도 혼잣몸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는 김 일등병을 향해,

"꽃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 있는 발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다!"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로 말했다.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 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 -

17. [A]를 <보기>와 같이 바꾸어 썼을 때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지형을 이리저리 살펴보다니 현 중위가 김 일등병에게 말했다.

“능선을 타고 가기보다 계곡으로 내려가는 게 어떨까?”

잠시 생각을 하다 김 일병은

“현 중위님,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능선을 타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현 중위는 땀을 닦으며 불만스런 목소리로 되받아쳤다.

“김 일병, 무슨 얘기가, 질러가면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잖아!”

“시간이 단축된다는 보장이 있어야지요. 계곡을 내려갔다가 숲속에서 방향이라도 잃게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길을 헤맬 수도 있어요.”

하고 김 일등병은 주대위와 현중위를 번갈아보며 말했다.

- ① 극적인 생동감을 더 느끼게 한다.
- ② 서술자와 사건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한다.
- ③ 구체적 장면을 보여줘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 ④ 인물이 처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여 준다.
- ⑤ 대화하는 인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18. 위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모두 고려할 때,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 ①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어리석음
- ② 전쟁 상황에서 보이는 인간애와 비정한 생존욕구
- ③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의 인간의 나약함과 허무함
- ④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지양하고 평화를 지향함
- ⑤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전쟁의 참혹함

19. <보기>는 ‘누렇다’의 의미를 상징 사전에서 찾은 내용이다. 이를 참조하여 ㉠의 ‘누런색(빛)’의 이미지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보기>

누렇다

- ① 익은 벼와 같이 다소 탁하고 어둡게 누르다. ㉠누런 황토 먼지 / 누렇게 익은 벼.

1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들의 심리 변화 양상이 나타난다.
- ② 인물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 ③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돼 대결 양상을 보인다.
- ④ 인물들의 내면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 ⑤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상징적 소재를 통해 그리고 있다.

② 영양 부족이나 병으로 얼굴에 핏기가 없고 누르개하다. ¶얼굴이 누렇게 되다.

누렇게 뜨다

① 오래 앓거나 굶주려서 얼굴빛이 누렇게 변하다. ¶아버지는 부황이 든 사람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 부석부석했고, 어머니는 숯재강마른 대꼬챙이였다.

② 매우 난처한 일을 당하여 어쩔 줄 몰라 얼굴빛이 누렇게 변하다. ¶그 아이는 얼마나 겁을 먹고 있었던지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다.

- ① ‘불모의 황야’를 통해 생명력을 잃은 거친 환경을 짐작하게 한다.
- ② 전체적으로 누런빛의 배경은 전쟁이 낳은 비정한 상황을 상징한다.
- ③ 생명력을 상징하는 ‘태양’마저 ‘황달’이 들었다는 것은 극한 상황을 암시한다.
- ④ ‘누런빛의 개미떼’는 인물들이 오래 앓거나 굶주려서 기력이 소진된 상태를 보여준다.
- ⑤ 개미떼의 목을 자르는 누런 빛깔의 왕개미는 인물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상징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느 등산코스에 이르렀다. 김 일등병이 대번해서 업을 차례였다.

지형상으로 보아 앞에 가로놓인 계곡을 내려가 앞산으로 질러 올라가면 잠깐이요, 그렇지 않으면 ㉠**꾸불꾸불 굽이진 능선**을 상당히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곳이었다.

현 중위는 계곡을 내려가 곧장 가자고 했다. 누구든지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었다. 더욱이 그들은 단 몇 걸음의 단축이나 마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 것이었다.

김 일등병의 의견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계곡을 내려갔다 나무 숲 속에서 방향이라도 잃게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길만 더 더디게 되기 쉽다는 것이다.

얼른 결정이 지어지지 않고 있을 때 주 대위가 한마디했다.

“현 중위, 김 일병의 말대로 하지.”

퍼뜩 현 중위의 눈이 주 대위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 권총으로 갔다. 그러는 그의 눈앞에는 또다시 꿈의 장면이 나타났다.

[A] 한결같이 누렇게 뜬 하늘에는 황달 든 태양이 타고 있고, 그 밑으로 한없이 넓게 깔려 있는 불모의 황야. 그 한가운데 그는 땀을 철철 흘리며 서 있었다. 바로 앞에 누렇게 뜬 메마른 흙바닥에 개미 구멍이 있어, 누런빛을 한 조고만 개미 떼가 연달아 기어 나오고, 그것을 구멍 입구에 같은 빛깔의 왕개미가 대기하고 서서 자꾸만 목을 잘라 내고 있는 것이다. 마치 그것은 왕개미가 기계적으로 주둥이를 놀리고 있는데 거기 꼭 맞는 속도로 작은 개미 떼들이 기어 나와 목을 들이치는 것과도 같았다. 그리고 목 잘린 개미 떼들은 그대로 누렇게 뜬 흙으로 화해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거기 따라 점점 흙이 높아지면서 그의 정강이털이 거의 묻히게 돼 있었다.

초조할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개미 구멍 한옆에 따로 뚫려져 있는 셋구멍을 하나 발견했다. 이것만은 꿈 속에서는 전혀 없었던, 지금 그 자신이 의식적으로 뚫어 놓은 구멍이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개미 떼들은 그냥 본래의 구멍으로만 나오면서 목을 무수히 잘리우고 있는 것이었다.

현 중위는 주 대위를 업지도 않은 몸이건만 전신에 ㉡**비지땀**을 흘렸다.

해거름 때 세 사람은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아 구워서 나눠 먹었다.

다 먹고 난 현 중위가 뒤라도 마려운 듯이 자리를 뒀다.

그런 지 좀만에 주 대위가 김 일등병에게 말했다.

“자네두 여길 떠나게.” / 김 일등병은 그게 무슨 말이라는 듯이 주 대위를 쳐다봤다.

“현 중위 갔어. 기다리다 못해.” / “기다리다 못해 가다뇨?”

“내가 사살하길 기다리다 못해 떠났어.” / 사실 현 중위는 돌아오지 않았다.

주 대위는 김 일등병의 시선을 마주 바라보기를 피하면서,

“자네두 어서 여길 떠나게.” / 김 일등병은 잠시 주춤거리다가

㉢**서산에 비낀 붉은 놀**을 한 번 바라보고는 말없이 주 대위에게 등을 돌려 댔다. <종락>

하지만 걷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른쪽 귀 뒤에 감촉되는 권총 끝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 마 옮겨 놓게 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산 밑에 이르렀다. / “오른쪽으루!”

“그대로 똑바루!”

그제야 김 일등병의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점점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졌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한 거리에서인지는 짐작이 안 되었다.

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 놓는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럴건만 쉬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귀 뒤에 와 닿은 권총 끝이 더 세게 밀고 있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다. 어떻게 걸음을 떼어 놓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저쪽 어둠 속에 자리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거기서 짓고 있는 개의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과 동시에 귀 뒤에 와 밀고 있던 권총 끝이 별안간 물러나면서 얹힌 ㉤**주 대위의 똥똥**이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 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 -

2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평화스러운 배경과 인물의 불안한 내면 심리가 대비되고 있다.
- ②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인물의 심리, 사건 등을 모두 서술하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사건 전개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④ 짧고 간결한 문장을 구사하며 대상의 감각적인 인상들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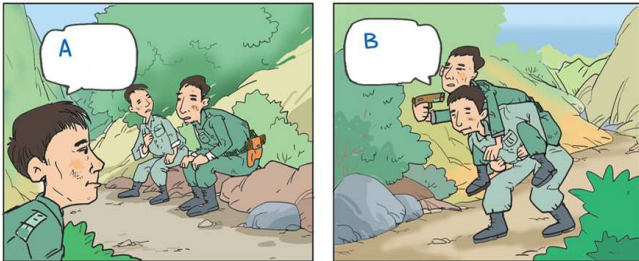
21. <보기>가 위 글의 ‘김 일병’이 나중에 쓴 일기라고 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그 날, 나, 현 중위, 주 대위는 낙오된 상태에서 며칠 동안 산 속을 헤매야 했다. ㉠현 중위는 어느 능선에 이르렀을 때, 능선을 따라 걷지 말고 곧장 질러가자고 얘기했다. 그 누구든지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현 중위처럼 가까운 길을 택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달랐다. 만일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길을 잃게 되면 갈 길이 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 그런데 현 중위는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다. 나는 그가 불일을 보려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았다. 주 대위는 처음부터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현 중위는 자기 혼자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우리들을 버리고 혼자 길을 떠난 것이었다. …… 나는 차마 주 대위의 말에 따를 수 없어 주 대위를 다시 등에 업었다. 주 대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역시 상관으로서의 체통을 잃지 않았다. 일일이 나에게 방향을 지시하며 장교로서의 위엄을 지키려 하였다. ㉤내가 민가를 발견하고 이제는 살았다고 크게 한숨을 내쉬는 순간 결국 주 대위는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2. 위 글에 나타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때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 주 대위님, 미안합니다. 저와 김 일병이 힘을 합쳐 살 길을 찾겠습니다.
B : 김 일병, 미안하네. 하지만 이 방법밖에는 없겠어.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게나.
② A : 주 대위님, 용기를 잃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요.
B : 김 일병, 자네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네.
③ A : 주 대위님, 미안하지만 우리 두 사람을 위해 당신이 결단을 내려

줬으면 합니다.

B : 김 일병, 자네만큼은 부디 삶에 대한 의욕을 버려서는 안 되네.

④ A : 주 대위님, 나와 김 일병이라도 살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B : 김 일병, 더 이상은 무리라네. 어서 나를 두고 떠나게.

⑤ A : 주 대위님, 당신이 참 원망스럽군요. 당신 때문에 우리마저도 발이 묶이고 말았어요.

B : 김 일병, 현 중위는 꼭 돌아올 거네. 포기하지 말게나.

23. 전쟁에 대한 인식이 [A]에 형상화된 내용과 가장 비슷한 것은?

- ① 전쟁에서 자신의 맥박이 뛰려면 그 누군가의 목을 겨냥해야 한다.
② 결국 전쟁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무의미한 대결일 뿐이다.
③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전쟁을 감행하는 세력은 자신의 속내를 몇 겹으로 감싸면서 감추려고 한다. 그리고 그 속내에는 전쟁을 일으킨 본래의 목적이 숨어 있다.
④ 전쟁은 인간의 무기력함을 더욱 실감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개인은 그저 거대한 힘에 떠밀려 왜 죽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무참하게 죽어 갈 뿐이다.
⑤ 개인의 양심과 집단의 명분은 전쟁터에서 더욱 예리한 불꽃을 튀기며 맞부딪치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은 개인의 양심이 사기그릇마냥 형편 없이 깨어지고 만다.

24. ㉠~㉣ 중, 함축적 의미가 <보기>의 밑줄 친 ‘불빛’과 가장 비슷한 것은?

<보기>

흐린 세상 속에서 불빛은 조금씩 떠오르고 나는 그 불빛을 가슴에 옮겨 놓으며 세상을 두박두박 걸으려 한다. 불빛, 그 반짝거림은 흐린 세상 속에서 나를 이끈다.

불빛 / 장현우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정답 및 해설>

- 1) ③ 이 작품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를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6.25 전쟁 중 낙오된 주 대위, 현 중위, 김 일등병, 이 세 사람은 아군을 찾아 남하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에 대한 희망보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지배당한다. 그러나 삶에 대한 욕망을 끝까지 놓지 않는 주 대위와 부상당한 주 대위를 버리지 않는 김 일등병을 통해 인간의 본능적인 생존 의지와 인간애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겪는 등장인물들의 사건과 심리는 간결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또한 인물이 처한 상황과 그에 대한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2) ⑤ ‘개 짖는 소리’를 통해 등장인물은 ‘인가가 가까이 있을 것이라는’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다. 즉, ‘개 짖는 소리’는 강인한 생존에 대한 욕구가 바깥으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등장인물의 내면심리가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즉,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주 대위가 들은 끝까지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다지게 하는 그 소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소리로 생존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된다.
- 3) ④ ①의 바로 다음에 보면 ‘자기 자신도 받고 싶었다.’가 나오는데, ‘주 대위’가 받고 싶은 대상은 ‘개 짖는 소리’를 통해 얻은 삶에 대한 희망임을 추리할 수 있다. 따라서 ④는 마을에 도착하는 일이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것이 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과 ③은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고, ②는 오히려 ‘주 대위’가 삶에 대해 표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는 삶의 희망과 관련이 없는 진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4) ② [A] 장면에서 ‘김 일등병’은 지친 몸에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주 대위를 원망하고 있지만, 주 대위의 권총이 주는 위협 때문에 비틀거리는 걸음이나 마 걸음을 옮겨 놓고 있다. 그러다가 삶의 희망을 가져다주는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희망을 갖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보기>의 ‘만도’와 ‘진수’가 서로 힘을 합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떠올렸다면, ‘김 일등병’에게는 ‘주 대위’의 행동이 서로가 살 수 있게 협력하고 있는 행동으로 느꼈다고 볼 수 있으므로 ②가 가장 적절하다. 이 장면은 ‘김 일등병’이 ‘조급하게 서둘렀다’거나, ‘부모님’을 떠올리는 상황이 아니다. ④의 경우는 부조리한 상황과 관련이 없으므로 역시 적절하지 않다.
- 5) ② 이 글은 이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6) ①, ④ 이 작품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안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생에 대한 인간의 집념을 그리고 있으며, 그 집념으로 인해 결국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7) ④ 이 소설은 극단적인 상황에 다다른 인간들의 허무주의를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더욱 강렬해지는 생존 본능에 대해 다루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 8) ④
- 9) ⑤
- 10) ①
- 11) ⑤
- 12) ④
- 13) ③
- 14) ⑤
- 15) ⑤
- 16) ③ 위 소설에서는 주대위와 현중위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

- 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물간의 갈등 요소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돼 대결양상을 보인다고 볼 수는 없다. 현중위는 마음 속으로 주대위가 죽여주길 바라며 눈치를 주고 있으며, 현중위는 그런 주대위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요소가 대화나 행동으로 표면화돼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①: 인용된 부분에서 현중위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혼자 살 길을 찾는 것으로 생각을 바꾼다. 한편 주대위는 죽음에 대한 집착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김일등병을 위해 자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심리가 변화한다. ⑤: 현중위의 꿈 장면에서 나오는 ‘작은 개미떼’나 ‘왕개미’는 세 인물이 처한 비정한 상황이나 불안한 심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소재이다.
- 17) ② [A]는 서술기법 측면에서 ‘말하기’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기>는 ‘보여주기’ 수법으로 서술하고 있다. ‘말하기’는 서술자의 설명이나 분석에 의해 사건을 진행하며, ‘보여주기’는 인물의 대화를 제시하거나 행동을 묘사하는 방식이다. 서술자와 사건 사이의 ‘거리’는 서술자가 사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서술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적극적인 태도로 서술하면 거리가 ‘가깝다’고 하며, 소극적으로 서술하면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서술자가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설명이나 분석을 하는 것이 단순히 대화, 행동을 서술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서술 방법이다. 그러므로 ‘보여주기’ 수법인 <보기>로 바뀌게 되면, 서술자와 사건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진다. ③: <보기>는 인물이 대화하고 행동하는 구체적인 장면이 나타난다. 구체적인 장면이 서술될수록 독자 입장에서 읽기 떠올릴 장면이 더 많아진다. 그러므로 ‘보여주기’ 수법은 ‘말하기’ 수법보다 독자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한다. ④: <보기>는 인물이 대화하거나 행동하는 것, 즉 겉으로 드러나는 객관적 정보만 서술한다. 반면, [A]에서는 사건의 의미까지 분석하고 있어서 독자는 서술자의 적극적 관여를 느끼게 되며, 그로 인해 독자 입장에서 다소 주관적인 전달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 18) ② 발문을 유의해야 한다.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모두 고려하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상당한 주대위가 죽기를 바라는 현중위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비정하고 이기적인 생존 욕구를 읽을 수 있다. 반면, 주대위 옆에서 끝까지 희생하는 김 일등병이나 마지막에 김일등병을 위해 자결을 결심하는 주대위를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간애가 발휘됨을 알 수 있다. ③: 인물들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나, 대체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⑤: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소설은 맞으나,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킨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설명이다. 인물들의 판단이나 선택은 그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19) ⑤ 왕개미에게 힘 한번 못 써보고 죽음을 당하는 개미떼들은 현중위를 포함한 연약한 인간들을 상징한다. 왕개미는 인간들을 이런 처참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비정한 전쟁 상황을 상징한다. 세 인물들이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현중위가 꿈의 장면을 생각하는 시점에서 인물간의 갈등은 고조되고 있으나 왕개미가 그것을 상징하는 소재는 아니다. ③: ‘태양’은 통념적으로 열정이나 생명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중위의 꿈에선 ‘황달이 든’ 태양이 나타나는데, 태양마저 생명력이 없는 극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이런 설정을 했다고 봐야 한다.
 - 20) ① 이 글은 전투 중에 낙오한 세 명의 군인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전 체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을 축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또 짧고 수식적이지 않은 간결체의 문장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세 명의 등장 인물들은 전쟁이 가져오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강렬한 삶의 욕구를 느끼고 있는데 작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다. 따라서 ②~⑤는 적절한 설명이다. 그러나 이 작품 속에서 배경과 인물의 심리가 대비되어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①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21) ④ 김일병의 등에 업힌 주대위는 김일병에게 하나하나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이를 상관으로서의 체통, 또는 장교로서의 위엄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대위는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필사적으로 아군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할 뿐이다. ① 현중위는 단 몇 걸음이나마 단축하기 위해 계곡 쪽으로 내려가자고 말한다. ② 김일병은 계곡으로 갔다가 나무 숲

속에서 길을 잃을 것을 염려하고 있다. ③ 현중위는 자기라도 살겠다는 마음으로 혼자길을 떠난다. ⑤ 김일병이 민가를 발견한 순간 주대위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만다.

22) ③ 주대위가 현중위에게 김일병의 말대로 하라고 하자 현중위의 눈이 퍼뜩 주대위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 권총 쪽으로 간다. 이 부분을 통해 현중위가 은연 중 주대위에게 자결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현중위와 김일병은 살아 돌아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주대위는 김일병에게 권총을 겨누는데 이는 김일병이 끝까지 삶에 대한 강한 욕망을 느끼도록 일부러 위협한 것이다. ①, ② 현중위는 주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꿈 무언의 압력을 넣는다. ④ 주대위는 김일병이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일부러 총을 겨눈다. ⑤ 주대위와 김일병은 현중위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23) ④ [A]에서 왕개미는 전쟁, 또는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을 암시한다. 개미떼들은 왕개미가 기계적으로 목을 잘라내는 데도 끊임없이 목을 들이미는데, 결국 이 개미들은 전쟁의 와중에서 무기력하게 희생되는 인간들, 즉 이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24) ④ <보기>의 ‘불빛’은 삶의 희망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즉 ‘불빛’은 화자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존재이다. 이것과 함축적 의미가 비슷한 것은 ‘개짚는 소리’이다.